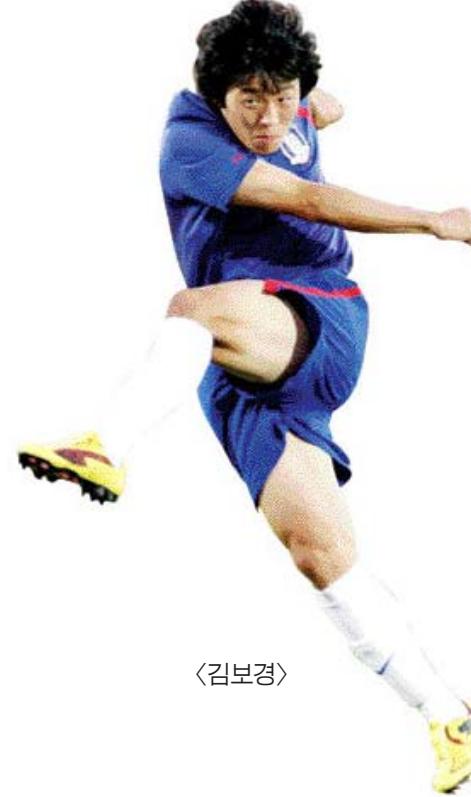


# 카메룬 격파 해법 찾아라!

'U-20 월드컵' 27일 카메룬과 예선 첫 경기

'원발 달인' 김보경 등 숏 감각 조율 극대화



26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 나선 한국 축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세 이하(U-20)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개막전 상대인 카메룬을 꺾 해법 찾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축구대표팀은 23일 오후 5시 10분(한국시간 24일 오전 0시 1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수에즈 아인

소크나의 라스아데베아 연습구장에서 이집트 입성 후 이를째 훈련을 이어갔다.

전날 자체 연습경기로 막바지 조작력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던 대표팀은 이날은 슈팅 훈련과 좁은 공간에서 득점력을 높이려는 미니 게임으로 카메룬과 첫 경기에 대비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선수들은 볼 돌리기와 패스 훈련에 이어 곧바로 슈팅 연습에 들어갔다.

이병영(부산)과 김승규(울산), 김다솔(연

세대)이 돌아가며 골문을 칠 때 기운데 18명의 월드 플레이어 전원이 아크 정면에서 강한 슈팅으로 골 감각을 조율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강한 슈팅에 신경을 쓰는 바탕에 공이 높이 뛰거나 골대 옆으로 빠지자 "힘을 빼고 정확하게 공을 발동에 맞춰라. 공이 골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슈팅 연습에선 '진담 키커' 특명을 받은 '원발 달인' 김보경(홍성대)과 최전방 공격수 김동섭(도쿄시마)이 정교함과 파워를 동시에 갖춘 대포를 숏으로 코칭스태프와 동료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홍명보 감독은 카메룬 격파 해법을 묻는 말에 "초반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집

중력을 흘트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후반 20여분을 남기고 그때부터 득점 찬스를 노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스트 11 확정 여부를 물자

"미드필더와 공격진의 한 두 포지션은 여전히 주전 경쟁 중이다. 선수들에게 카메룬과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칼링컵' 설기현 풀타임 활약...박지성은 결장

설기현(30·풀럼)이 2009-2010 칼링컵 3라운드(32강)에서 '난적'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풀타임을 뛰었다.

반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은 이날 울버햄튼과 칼링컵 3라운드에 결장했다.

설기현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맨시티와 칼링컵 3라운드(32강)에 선발출전해 120분 동안 그라운드를 뛰면서 한 차례 멋진 발리슛을 선보였지만 끝내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설기현은 프리시즌 경기에서 5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했지만 유럽축구연맹(UFCA) 유로파리그와 정규리그, 컵 대회 등 공식경기에서 풀타임을 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기현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 모나코 박주영 '침묵'

박주영(24·AS모나코)이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을 실패한 가운데 AS모나코도 프랑스컵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박주영은 24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낭시의 스타드 마르셀 피코에서 치러진 AS 낭시와 프랑스컵 3라운드(32강전) 원정에서 후반 15분부터 교체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생기지 못해 최근 두 경기동안 이어온 공격포인트 행진(1골 1도움)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전통종목 최고수들 다 모여라!

2009 전통종목 전국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속초 액스포공원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회와 강원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들이 함께하는 세계한민족축전과 연계해 치러진다.

엑스포 C 구장 등 속초 일원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민속 고유의 종목을 보전·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시·도 동호인 2천500여명과 강원도민 등 6천여명

이 참가하며, 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 500명도 함께 한다.

대회 종목은 줄다리기·족구·택견·국악기공 등 총 6개 정식종목 및 민속경기·민속놀이에 전국 최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족구(3부 40대·50대·여성부), 국악기공(단체전), 택견(4부 남자중등·남자고등·여자·남자일반부), 줄다리기(2부 남자·혼성부) 등 4개 종목

에 120여명이 참가한다. 전남은 국악기공, 택견, 씨름 3개 종목에 60여명이 출전한다.

김창준 광주생활체육회장은 "우리 전통종목을 알릴 수 있도록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족구와 국악기공과 같은 생활체육이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 속초서 '전통종목 경연대회'

### 세계한민족축전도 함께 열려



24일 목포 시네마볼링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각장애인 블링 경기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던진 풀

/연합뉴스

### 마음의 눈으로

체육대회 시각장애인 블링 경기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던진 풀

으로 공을 굴리고 있다.

전남 '씨름왕' 뽑는다

내일부터 고흥 녹동향

국민생활체육협회 대통령배 2009 전국씨름왕전 남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간 녹동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국민생활체육협회 전라남도연합회(회장 김세만) 주관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0개부 4명씩 880여명이 출전하여 열전을 벌이게 된다.

경기는 남자 초·중·고, 대학부,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등 7개부와 여자 60kg, 70kg, 80kg부 3개부로 나뉘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별 개인전으로 각 부별 1위, 2위, 공동 3위 등 씨름왕을 선발하게 되며 매일 오후 4시부터 고흥특산물인 유자, 석류, 미역, 김, 멸치, 다시마, 그리고 자전거,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추첨하여 제공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주간종기자 gjiju@

## 세종고 소프트볼 '결승행'

### 디자인과 꺾고 올 3관왕 눈 앞

세종고는 24일 경기 양평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중별여자소프트볼대회 준결승에서 대전디자인고를 10-3, 6회 콜드 게임승을 거두고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다.

세종고는 이날 경기에서 초반 수비불안으로 4회까지 2-3으로 뒤지자 5회말 접전 6안타에 불펜 2개·상대실책 1개를 끌어 6득점, 사상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세종고는 6회 2점으로 추가해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세종고는 올 들어 회장기(4월)·미추홀기(7월)에 이어 3관왕을 노리게 됐다.

이날 세종고 유격수 홍유진은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팀 승리 수확감이 되었다.

세종고는 이날 충북사대부고와의 예선 3차전에서 9-2, 6회 콜드 게임승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승패를 거두며 상승세를 탄 세종고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신정여성과 대회 우승컵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친다.

/서승원기자 swseo@

## 전남 선칠성 역도 3관왕

### 男 -74kg급 한국신기록 우승

### 댄스 스포츠 박영철도 2관왕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막판까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인간승리의 투호를 발휘하고 있다.



리프트 177.5kg·파워리프트 종합 322.5kg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특히 선칠성은 노부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면서 틈

틈이 운동을 해온 만큼 3관왕은 더욱 값진 결과이다.

댄스스포츠에선 박영철 선수가 혼성 라틴open 삼바, 혼성 라틴open 짜이브 2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사격에선 이윤리 선수가 여자 50m 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 1개를 추가, 이번 대회에서 금 2개를 획득했다. 유도 남자 73kg급에선 윤상민 선수가 결승에서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우승했다.

광주는 4일째인 24일 타구·펜싱 등 8개 종목에서 금 14개, 은 11개, 동 11개를 추가해 중간집계 금 30개, 은 31개, 동 28개로 종합점수 4477점으로 14위를 기록 중이다.

전남은 역도 선칠성(남자 74kg급)·-74kg급(여자 50m 소총) 선수에게 힘입어 중간집계 금 16개, 은 45개, 동 57개 종합점수 6777점으로 종합 8위를 달리고 있다.

전남 선칠성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남자 -74kg급에서 스웨트 145kg·데드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25일(금)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KEB 인비테이셔널 한중골프 2R(10:15~KBS2)

▲2009 프로야구<하이로즈> KIA(18:15~SBS스포츠) <두산> SK(18:15~MBC ESPN) <삼성> 한화(18:20~Xports) <롯데> LG(18:20~KBS n스포츠)

### 26일(토)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27일(일)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28일(월)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29일(화)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0일(수)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1일(목)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2일(금)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3일(토)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4일(일)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5일(월)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6일(화)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7일(수)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8일(목)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

### 39일(금)

▲제41회 전국종합양궁선수권대회(13:40~MBC)